



5면

문화재수리기능자 전국 최다 배출

# 전주매일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음 4월 21일) 제27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2034년까지 초광역 에너지망 기반 구축

## 호남권 최초 RE300 프로젝트 사전용역 결과보고회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호남 송·변전설비 실행 등 추진  
유연성 자원 등 호남 RE300 성공 핵심 키워드로 떠올라

전북도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이하 호남 RE300) 프로젝트 사전용역 결과보고회를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이자 호남권 최초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이번 용역은 호남 RE300의 구체적인 실행·투자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주연구원과 3개 시·도청 및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주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개 광역지사청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인표 민주당 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등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초광역 에너지망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호남지역 송·변전설비 계획 우선 실행, 직·교류 혼합 배전망 확대를 통한 소규모 자원 수용능력 제고, 호남지역 내 단위 배전망 자립 및 상호 연계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RE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실현에 맞춰 RE100으로 기반을 구축한 초광역 에너지망을 완성하는 단계다. 대규모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존 가스 공급망 대체, 전기·열·가스 간 에너지 전환(셰더 커플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호남지역 내 단위 배전망 및 열 공급망 상호 연계 완성 등이 핵심이다.

호남 RE100 투자계획 규모는 2034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약 14조 6417억원, 초광역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6036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조336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생산유발 효과 387.366.862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32조9.966억원, 취업유발 효과 150만6.439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호남 RE300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초광역 에너지망’과 ‘유연성 자원’의 중요성이 떠올랐다.

현재와 같이 공급망과 저장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제주의 경우처럼 전력 생산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위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4년 RE100 달성 시 46%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에너지 공급망 구축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 대부분 국가도 전력량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등 과잉발전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광주, 전남과 함께 새만금과 신안의 바람과 태양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민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사남권 광역경제권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달 31일 열린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명창부 양혜인씨가 영예의 장원에 선정됐다. 양씨는 이날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 후 임을 그리는 대목을 열창해 장원으로 선정됐다.

## 전주대사습 판소리명창부 장원, 양혜인씨

춘향가 중 이별 후 임 그리는 대목 열창... 대통령상 수상  
학생대회서 판소리부 박지현·관악부 이재영 등이 장원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판소리명창부에서 양혜인씨(33·전남 목포)가 영예의 장원에 선정됐다.

양씨는 지난달 31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 후 임을 그리는 대목을 열창해 장원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6,000만원을 받았다. 상금은 지난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다.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에서 양혜인씨(33·전남 목포)가 영예의 장원에 선정됐다. 양씨는 지난달 31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 후 임을 그리는 대목을 열창해 장원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6,000만원을 받았다. 상금은 지난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다.

까지 17일간 이달 개관한 전주대사습놀이를 비롯해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덕진예술회관, 국립무형유산원 등으로 분산 개최돼 열린 경연이 펼쳐졌다.

이날 전주MBC로 생중계된 본선에서는 판소리명창부 양혜인 씨를 포함해 각 부문별 장원자가 배출됐다. 부문별 장원자로는 ▲국회의장상(무용명인부) 김호은 ▲국무총리상(농악부)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민요부, 가야금명창부) 이덕용 지현아 ▲전라북도지사상(판소리일반부) 전민권 ▲전주시장상(무용일반부) 이우영 ▲문화방송사장상(기악부, 시조

부) 송누리영, 김하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30일 진행된 학생대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판소리부 박지현, 관악부 이재영, 현악부 김예준, 무용부 박정인 ▲전북도지사상 민요부 이가현, 가야금명창부 김가현 ▲대상 문화재단이사장상 농악부 국립예술중고등학교가 장원으로 선정됐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전국대회는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무관객으로 대회를 진행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계획 하에 안전하게 진행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악분야 최고 등용문이라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올해 전북의 관광 이끌 관광벤처기업 4곳 발굴

도, 우리 동네 픽·동문창업·아이티지·공방·담 등

전북도가 올해 각종 공모전을 통해 전북의 관광을 이끌 관광벤처 4개 기업을 발굴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개최한 ‘2021년 전북도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사업 공모전과 한국관광공사의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도내 4개의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2021년 전북도 관광벤처기업’ 공모전에는 도내 14개 기업이 도전해 ▲우리 동네 픽, ▲동문창업, ▲아이티지 등 최종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달 14일 1차 서류심사와 27일 이어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이들 기업에는 1,400만원에서 1,500

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 차등지원과 함께,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홍보관로개척과 투자 유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관광 분야 창업 기업(제형 기반, 시설 기반, IT 기반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 동네 픽’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숙박, 음식점 등을 소개하는 플랫폼이다. 관광객들이 유명 인스타그램이나 SNS보다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숙박, 음식점 등을 원하고, 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을 착안했다. 동문창업은 전통음악 공연자와 단

체, 공연 형태를 구매할 수 있는 공연 서비스공간 기반형 체험형 공연 문화콘텐츠를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해 랜선을 통해 국내관광 및 잠재적인 국외관광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전북도가 한류(K-Culture)의 분향임을 대내외에 알려 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아이티지’는 관광지에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 서비스를 위해 현장 참여형 오픈 채팅 기반의 관광지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4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공방·담이 예비·초기 관광벤처 기업에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